



2013년 3월 29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창조형 서비스업, 새로운 수출산업

• 글로벌전략

Global Macro Strategy: 글로벌 미디어 르네상스

• 계량분석

Kospi200 정기변경 - 7종목 변경 예상

• 이머징마켓 동향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상해종합 급락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SK하이닉스 외 5개 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 산업/기업분석

유통, 두산, 메리츠화재

• 국내상장 중국/일본기업 IR 참관기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50.82	1,948.71	1,977.67	1,983.70	1,993.44	1,993.52	
	등락폭	-8.59	-2.11	28.96	6.03	9.74	0.08	
	등락종목	상승(상한)	298(2)	429(6)	544(7)	384(1)	399(2)	411(5)
		하락(하한)	494(7)	370(2)	266(3)	411(1)	407(1)	387(0)
	ADR	91.83	95.42	98.23	99.89	101.54	100.36	
	이격도	10 일	98.29	98.47	100.06	100.41	100.94	100.99
		20 일	97.60	97.65	99.21	99.57	100.08	100.11
	투자심리	40	30	4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58	252	272	299	347	363	
	거래대금 (십억 원)	3,489	3,303	3,408	4,009	3,794	3,394	
코스닥	코스닥지수	544.56	551.25	549.56	549.90	548.72	552.64	
	등락폭	-1.70	6.69	-1.69	0.34	-1.18	3.92	
	등락종목	상승(상한)	374(5)	583(6)	536(8)	436(13)	399(8)	515(11)
		하락(하한)	546(11)	341(11)	377(5)	476(1)	517(2)	390(2)
	ADR	97.90	102.11	102.46	102.64	103.19	102.67	
	이격도	10 일	99.60	100.67	100.20	100.15	99.95	100.69
		20 일	100.73	101.71	101.21	101.06	100.65	101.19
	투자심리	60	6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57	403	378	385	435	401	
	거래대금 (십억 원)	1,952	1,897	1,800	1,948	2,030	1,83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551.9	875.4	968.1	192.8	161.5	214.4	71.3	31.0	168.4	28.3
	매도	1,587.1	1,026.2	774.8	138.8	144.4	243.6	48.8	27.3	154.9	35.5
	순매수	-35.3	-150.8	193.3	54.1	17.1	-29.2	22.5	3.6	13.5	-7.2
	03월 누계	1,184.1	-2,600.9	1,402.3	205.9	103.9	-543.1	109.2	-12.7	761.4	14.4
	13년 누계	495.5	-2,921.5	2,740.9	1,139.4	486.6	-1,865.9	-69.4	28.5	2,232.0	-314.9
	코스닥	매수	1,639.8	95.7	106.2	16.4	10.2	28.8	13.7	3.3	27.1
매도		1,699.3	71.2	70.6	11.4	10.2	22.8	6.0	2.2	15.3	16.3
순매수		-59.5	24.5	35.6	5.1	0.0	6.0	7.7	1.1	11.9	-0.6
03월 누계		-356.2	350.9	88.7	7.1	2.3	-21.6	-38.8	16.5	76.1	-83.4
13년 누계		-994.7	652.0	579.7	81.1	30.7	126.5	-24.4	3.1	316.4	-237.1

창조형 서비스업, 새로운 수출산업

3월 월간 밴드	1,930-2,050pt
2013년 연간 밴드	1,780-2,400pt
12MF PER	9.5배
12MF PBR	1.04배
Yield Gap	8.0%P

- ▶ 모멘텀 부재로 인해 상단이 막혀있는 한국증시, 박근혜 정책 기대심리가 커진다
- ▶ 2013년 박근혜정부 정책방향: 가처분소득 제고, 창조형 서비스업/중소기업 지원
- ▶ 박근혜정부,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를 창조형 서비스업에서 찾고 있다

■ 박근혜정부 정책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3월 순매도로
KOSPI 약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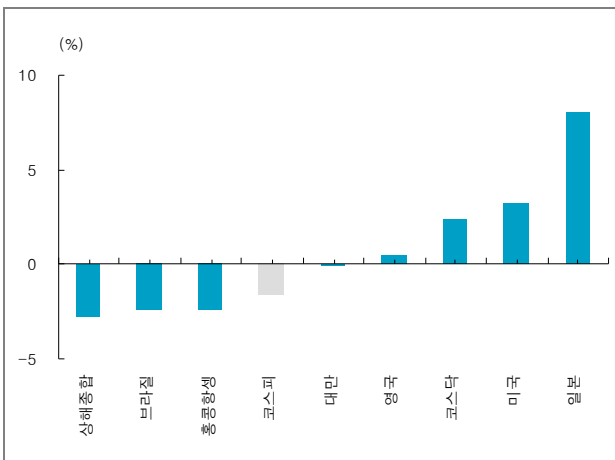
3월 한달동안 한국증시는 모멘텀 부재로 여타 글로벌 증시 대비 하락하는 디커플링을 겪었다. 일본 니케이 지수가 6.2%, 미국 S&P500이 3.1% 상승할 때 KOSPI200은 2.3%, KOSPI는 1.6% 하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가 1월 1.9조원 순매도에 이어 3월 2.6조원 순매도하면서 한국증시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주식투자자들은 뚜렷한 상승모멘텀이 없는 상황에서 점차 박근혜정부 정책에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주식투자자들은 박근혜정부 정책이 "엔화 약세", "키프로스 사태", "중국 유동성 긴축", "ETF 수급악화" 등 대외 악재로 인해 눌려있는 KOSPI 지수 등락률, 거래대금이 반전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고 있다.

궁금점 2가지
1) 추경 규모
2) 수혜 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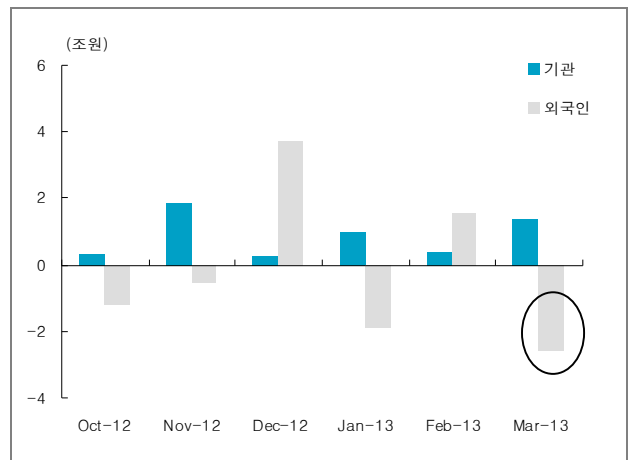
주식투자자들의 박근혜정부 정책에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크게 2가지라고 판단된다. 주식투자자들은 첫째로 2013년 GDP 성장률 2.3%에 그치는 경기둔화를 되돌릴 수 있을 정도로 추경규모가 충분히 클 것인지, 둘째로 재정지출 증가분, 통화정책 변화가 어떤 산업에 수혜로 작용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그림 1] 3월 글로벌 증시 등락률 (3월 27일 기준 MTD)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외국인 투자자 3월 KOSPI 2.6조원 매도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 추경 규모에 대한 추측: 재정지출 증가분은 10조 이내 + 총수입결손금

09년 추경시 28.4조원의 추가경정예산 중 총수입결손금이 11.2조원으로 능동적인 재정지출증가분은 17.2조원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13년 추경시에도 능동적인 재정지출증가분 외에도 총수입결손금도 상당할 전망이다

총수입결손금
13.7조원
세금 감소 6조원
지분 매각 지연 7.7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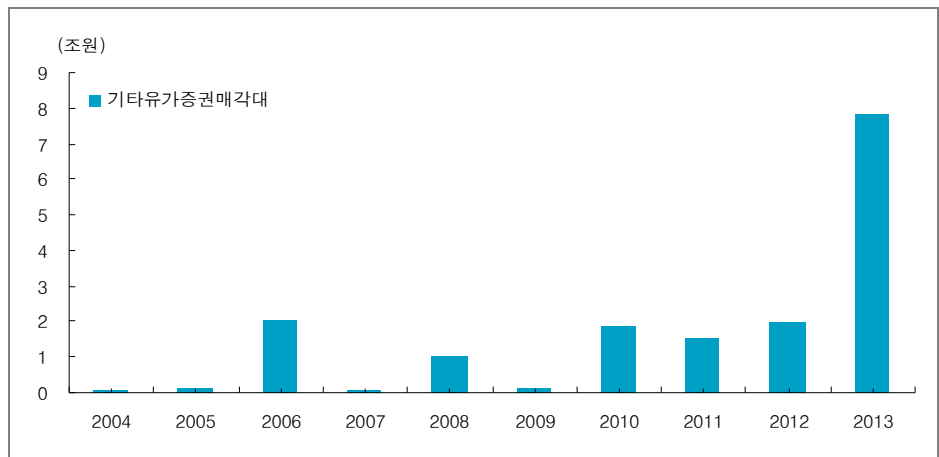
13년 3월 28일 발표에서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추경의 규모는 정책 조합에 있어서 추경의 위치와 세입 결손, 세출 확대 등 양쪽 측면을 같이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발언했다. 결국 13년 추경예산규모는 재정지출 증가분 10조원 이내와 상당규모의 총수입결손금이 더해진 금액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경기부양에 능동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금액은 10조원 이내라는 점을 기억하면 될 것 같다.

총수입결손금의 규모는 최대 13.7조원으로 예상되고 있다. 12년 성장률이 3.3%에서 2.0%(잠정추계)로 하향되고 13년 성장률이 4.0%에서 2%대로 하락하면서 세금수입이 6조원 감소하고 기업은행 지분 5.1조원, 산은지분 2.6조원 매각 진행이 지연되면서 세외수입이 7.7조원 감소할 전망이다.

13년 정부는
민영화를 통한 자금확보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총 13.7조원의 총수입결손금을 줄이기 위해 단기적으로 세외수입 확대를 위해 노력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비과세, 감면 정비방안 등 세금수입 확대방안은 13년 9월에나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기에 단기적인 수입확보 수단이 되긴 어렵다. 따라서 유례없이 높은 2013년 기타유가증권매각대 7.7조원이 과도해 보이는 하지만 정부는 기업은행, 산업은행 지분 매각 외에도 한국항공우주, 우리금융 등 기타 자산을 민영화, 매각함으로써 충당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의 강한의지를 고려하면 2013년 기타유가증권매각대 7.7조원은 일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연도별 기타유가증권매각대 예산 추이: 13년 공기업지분 매각예정규모가 큼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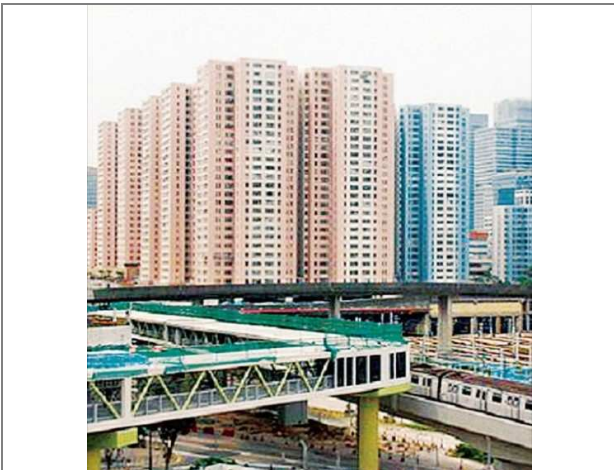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
- 부동산 가격 부양책보다는
내수부양책 성격이 강함

■ 수혜산업: 창조형 서비스업, 창투자

박근혜정부 내수부양책 수혜주로 건설업종, 은행업종이 언급되고 있으나 수혜 강도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정부의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대책인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보유지분 매각제도, 국민행복기금, 철도 위 행복주택, 주택연금 사전 가입제도"는 부동산 가격 부양책이라기 보다는 가처분소득 확대를 위한 내수부양책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 부양책에 가까운 DTI, LTV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의 대책은 민주통합당 반대로 정책실현 가능성이 낮다. 또 SOC 투자 1조원 증가도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없어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작용하기 어렵다.

한국은행이 하우스푸어, 렌트푸어의 이자비용 축소,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해 연내에 기준금리를 2.75%에서 2.00~2.25%까지 인하한다면 오히려 은행, 보험업종은 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

[그림 4] 홍콩 쿨롱베이역 단지- 철도위 행복주택 모델



자료: 한국투자증권

[그림 5] 서울 양천구 임대주택



자료: 한국투자증권

휴대폰 보조금 축소
→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박근혜정부는 가처분소득 제고를 위해서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한 물가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에서는 직거래 비중 확대, 과도한 가격변동성 완화를 위한 도매시장 효율화, 수급관리체계 개선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단기적으로는 변화가능성이 낮아보인다. 그보다 통신시장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통신사는 휴대폰보조금을 많이 지출해서라도 고객당 평균수익(ARPU)를 제고하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수익성보다 매출에 주력했었으나 점차 통신요금 인하, 휴대폰보조금 축소를 통한 수익성 개선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다. 극단적으로 고가스마트폰 위주로 구성된 한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저가스마트폰 비중이 점차 늘어한다면 통신업계의 수익성은 유지되면서도 일반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늘어날 수 있다.

"박근혜정부 201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유난히 창조형 서비스업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창조형서비스업에 대한 R&D 투자관련 세제지원 대폭 확대, 제조업과 동일한 업종별 조세특례제도 세제혜택, 창조형서비스업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등을 통해 창조형서비스업을 지원할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창조형서비스업은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 업종으로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으로 박근혜정부는 일자리 창출의 돌파구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제조업종에 대한 우대정책이 이어졌다면 앞으로는 해외진출 등을 통해 외화를 버는 내수서비스업종에 대한 우대정책이 보다 강화될 수 있다. 또 해외무역관 조사를 통해 유망 8대 서비스(의료, 콘텐츠, 이커닝, 엔지니어링, 스마트콘텐츠, 엔터테인먼트, 디자인, 프랜차이즈), 37개국에 대한 해외진출 장애요소를 파악할 계획이다.

* MICE: 국제회의를 뜻하는 '컨벤션' 이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전시(Convention), 박람회(Exhibition) 등 복합적 산업의 의미로 해석되면서 생겨난 개념

대성창투, 에이티넘인베스트, KTB투자증권 등 창투사에 대한 긍정적인 정책이 많다.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많은 투자위험을 부담하는 "한국미래창조펀드"를 시범조성하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코넥스(KONEX)' 시장을 7월 초 신설함으로써 창업기업 초기투자자금의 자금회수기간을 줄여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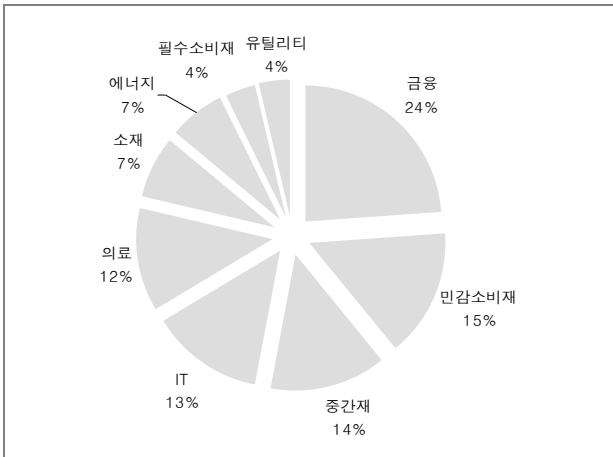
중소형주가
내수경기 회복에
보다 민감함

■ 내수부양과 중소기업, KOSDAQ

미국 S&P500을 전망할 때 미국 GDP성장률, 미국 소비자물가 등 경제지표는 필요충분조건이 아니다. 애플 등 미국 IT 시가총액이 글로벌 시가총액의 70%를 상회할 정도로 미국 대기업은 글로벌화된 만큼 S&P500 전망에는 여러 글로벌 요인이 작용한다. 반면 미국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2000을 전망할 때는 중소기업의 글로벌화가 대기업에 비해 덜 진행되었기 때문에 글로벌 요인보다 미국 경제지표의 영향력이 높다. 그래서 미국 부동산 경기 회복에 따라 중소형주인 러셀2000이 대기업 위주의 S&P500보다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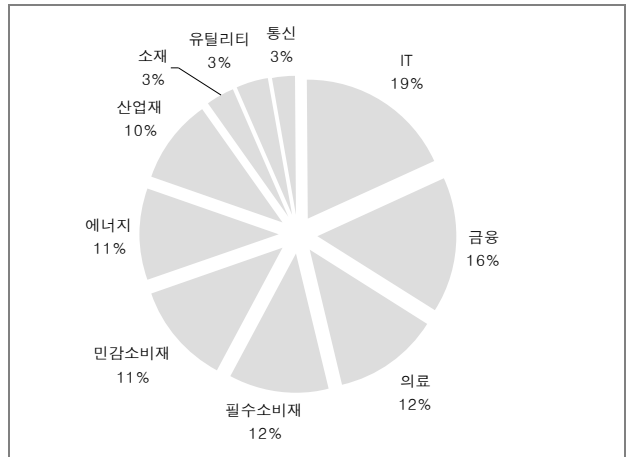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 대기업의 글로벌화는 고도로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내수경기 부양의 혜택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클 것으로 판단한다. 박근혜정부는 창조형 서비스업인 SW, 영화, 게임, 관광, 컨설팅, 보건의료, MICE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그림 6] 미국 러셀2000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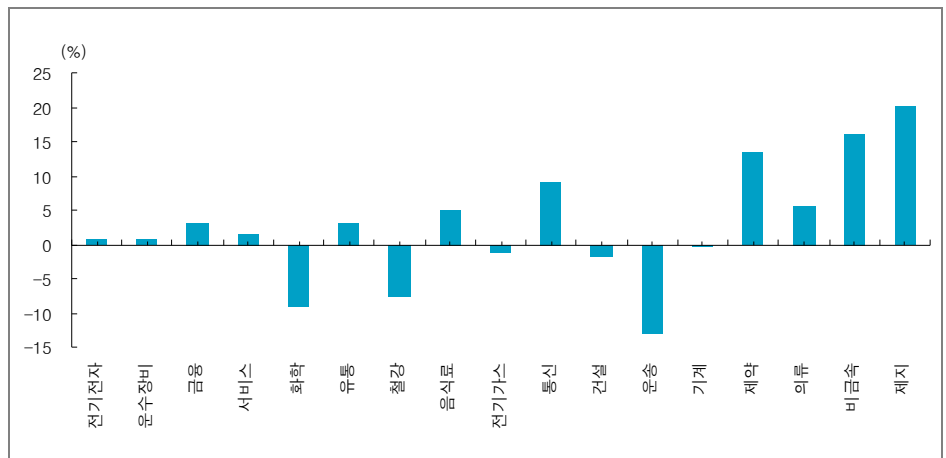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7] 미국 S&P500 산업별 시가총액 비중



자료: Fnguide, 한국투자증권

[그림 8] KOSPI 업종별 13년 등락률(시가총액순) - 중소기업섹터 수익률이 높음



자료: 기획재정부, 한국투자증권

Global Macro Strategy: 글로벌 미디어 르네상스

- ▶ 최근 글로벌 미디어/컨텐츠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환경 조성
- ▶ 한국의 신성장 전략의 핵심은 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
- ▶ 미디어/컨텐츠 산업 top picks: 에스엠/와이지/CJ E&M/스카이라이프

■ 글로벌 미디어/컨텐츠 가치의 재평가

미디어/컨텐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오죽하면 ‘셰익스피어를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다. 결국 미디어/컨텐츠의 가치란 주관적인 판단과 역사적 맥락에 좌우된다. 그런데 최근 글로벌 미디어/컨텐츠의 가치가 재평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우선 모바일 컴퓨팅 환경이 대중화 되면서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했다. 1990년대 후반 TMT 버블 사례가 말해주듯이,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할 때 미디어/컨텐츠의 가치는 재평가 받게 된다. 그런데 인터넷 도입 이후 온라인 미디어 플랫폼이 등장한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지만 보조수단이 아닌 가장 중요한 유통 채널로 인식된 것은 최근이다. 더구나 모바일 플랫폼은 인터넷보다 더 개인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 성향이 강해 미디어/컨텐츠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또한 미디어/컨텐츠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정립되고 있다는 점 역시 중요한 변화이다. 예를 들어 2012년 글로벌 음악 시장은 1999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성장세로 돌아섰다. 주로 광고에 의존해오던 플랫폼 업체들의 수익구조가 월정액 스트리밍 서비스로 확장되고 있다. 요컨대 훌륭한 콘텐츠만 있으면 사용자들이 얼마든지 비용을 지불하는 환경이 정착되고 있는 것이다.

■ 한국의 신성장 전략의 핵심은 문화와 첨단기술의 융합

새정부가 내세우는 신성장 전략의 핵심 키워드는 ‘문화융성’ 이다. 우리는 이것이 내포하는 진정한 의미가 첨단기술과의 융합에 있다고 믿는다. 모바일 환경의 가치사슬 즉, C(컨텐츠) / P(플랫폼) / N(네트워크) / D(디바이스)에서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플랫폼을 장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N과 D는 강하지만 이를 기반으로 플랫폼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C를 집중 육성하여 PND와 융합함으로써 모바일 가치사슬에서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전략으로 이해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서 끊임없이 변하고 적응하지 않으면 제 2의 노키아, 블랙베리가 될 수 있다.

글로벌 미디어/컨텐츠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아 보인다. 우리나라의 컨텐츠 산업 경쟁력 역시 무시 못할 단계이다. 특히 음악 관련 산업의 경우 국내 업체처럼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 고성장을 하는 경우도 흔치 않다. 국가적 차원에서도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 당사의 미디어/컨텐츠 산업 top picks는 에스엠/와이지/CJ E&M/스카이라이프이다.

*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29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월 29일자로 발간된 <Global Macro Strategy: 글로벌 미디어 르네상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Kospi200 정기변경 - 7종목 변경 예상

- ▶ 이마트, 한국항공우주 등 총 7종목 편입 예상
- ▶ 더 이상 알파를 기대하기 힘든 Kospi200 정기변경 이벤트

■ 이마트, 한국항공우주 등 총 7종목 편입 예상

거래소는 매년 6월 선물 만기일에 Kospi200 구성종목을 변경하고, 변경종목을 5월 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해왔다. 올해 6월 선물 만기일은 6월 13일이기 때문에, 다음 거래일인 14일부터는 변경된 종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Kospi200 지수가 산출된다.

Kospi200 구성종목을 변경하는 거래소의 기준은 주로 연평균 시가총액과 거래대금 순위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2013년 정기변경 종목선정의 기준이 되는 시계열 데이터는 2012년 5월초부터 2013년 4월말까지이다. 우리는 4월 말까지 상장종목들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까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Kospi200 변경종목을 미리 예상해보았다[표1].

총 7종목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신규편입종목으로는 이마트(139480), 한국항공우주(047810), 코스맥스(044820) 등 7종목, 제외종목은 한진중공업홀딩스(003480), 한솔테크닉스(004710), 경방(000050) 등 7종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제조업과 다른 산업군의 정기변경 조건이 다른 점을 감안하면, 서비스업 종목인 이마트가 비제조업 종목 중에 유일하게 Kospi200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1] 2013년 KOSPI200 정기변경 예상종목

업종	편입종목			제외종목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종목코드	종목명	시가총액 (십억원)
서비스업	139480	이마트	6,119	003480	한진중공업홀딩스	195
제조업	047810	한국항공우주	2,515	004710	한솔테크닉스	344
	044820	코스맥스	653	000050	경방	231
	079980	휴비스	426	001130	대한제분	221
	007810	코리아씨키트	398	008040	동아원	205
	005720	넥센	388	016380	동부제철	174
	004130	대덕GDS	375	103590	일진전기	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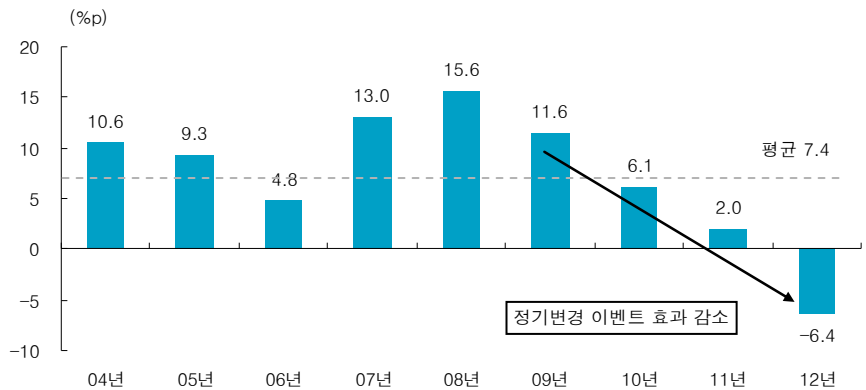
주: 2013년 3월 28일 기준

■ 더 이상 알파를 기대하기 힘든 Kosp200 정기변경 이벤트

Kosp200 정기변경 이벤트는 지수대비 초과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에게 적합한 대표적인 이벤트드리븐(event-driven) 전략이다. 기관투자자들의 주요 투자대상인 Kosp200에 편입될 경우 거래량 증가와 함께 인덱스펀드 설정을 위한 신규 매수가 이어져 벤치마크대비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가 이 전략의 주요 투자 논리이다. 실제로 2004년부터 2012년까지 9년 동안의 수익률을 살펴보면 4월 말에 이 전략을 구사해 만기일에 포지션을 청산했을 경우 Kosp200 대비 7.4%p의 초과수익률을 달성했다[그림1].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전략이더라도 시장에 알려지고 많은 투자자들이 구사하게 되면 알파는 감소하기 마련이다. Kosp200 정기변경 전략도 이제 시장에 많이 알려져 더 이상 알파를 기대하기 힘든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한다. 과거 이 전략의 성과를 살펴보면[그림1], 편입예상종목의 초과수익률은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년에는 2.0%p, 2012년에는 마이너스 초과수익률(-6.4%p)을 보여줬다. 우리는 이러한 알파의 감소가 추세적인 현상으로 판단하며, 이 전략의 향후 성과가 과거와 같이 우수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그림1] 과거 신규편입 종목의 평균 초과 수익률 (편입일 30거래일 전 매수, 편입일 청산)



자료: KRX, WiseFn

금융권 리스크 관리 강화, 상해종합 급락

- ▶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 안정적 성장, 인플레이 통제, 부동산시장 조절 강조
- ▶ 중국 인민은행, RP 발행 통해 300억위안 유동성 회수, 이번 주 총 570억위안 유동성 회수
- ▶ 중국은감회, 은행 리차이(실적배당형)상품에 대한 관리 강화, 위험자산 상품 특별관리 지시

상해종합지수 2.8% 급락.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주
약세 주도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2.8% 급락세로 마감했다. 1% 이상 하락세로 개장 후 지수 낙폭을 확대했다. 거래금액은 1,075억 위안으로 직전일 857억 위안에 비해 크게 늘었다. 은행과 증권, 보험 등 금융주가 큰 폭 하락하며 지수 약세를 이끌었다. 금융주가 급락한 배경은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에서 상업은행의 재테크상품(한국의 실적배당형 상품과 유사)에 대한 관리 강화를 지시했기 때문이다. 은행감독관리위원회는 신탁 등 위험자산으로 구성된 재테크상품별 투자대상, 회계처리에 대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은행주 실적 둔화 전망과 중국 최대 증권사인 증신증권 실적 악화 등의 요인도 금융주에 악재로 작용했다. 그 외 지역별 국5조 세칙안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리커창 총리가 올해 부동산가격 통제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다. 은행(-7.3%), 증권(-6.5%), 건설자재(-4.1%), 부동산개발(-3.5%), 전자(-3.3%), 섬유/의류(-3.2%), 비철금속(-3.2%), 보험(-3.1%), 전력(-2.8%), 화학(-2.6%), 석탄(-2.5%) 등 대다수 업종이 급락했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1%대 하락.
중소형 은행주 5% 급락.
건설 관련주도 약세

홍콩H지수는 1% 이상 내려 본토증시와 동반 급락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안 및 이탈리아 정치 불확실성으로 유로존 은행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또한 중국 은감회가 은행 재테크상품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도록 요구했다는 소식에 중소형 은행주가 5% 이상 급락하며 지수 약세를 주도했다. 다만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은 5대 은행의 하락폭은 1%대에 그쳤다. 금융, 건설 관련 종목이 동반 하락한 반면 음식료, 자동차 등 소비업종은 강세로 마감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3/28 (목)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236.30	-2.82	-3.78	-5.47	-1.45
홍콩 H	10,896.22	-1.25	-0.44	-4.73	-4.72
인도 SENSEX	18,674.56	-0.16	-1.11	-0.99	-3.87
러시아 RTS	1,446.76	0.05	-2.62	-5.71	-5.25
브라질 보베스파	56,034.29	0.65	0.01	-2.42	-8.07
베트남 VN	490.67	-0.12	-0.23	3.39	18.60
MSCI 이머징마켓	1,032.05	0.33	0.94	-2.14	-2.19

주: 28일 오후 5시 2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기관의 매수세가 확대되며 코스피, 코스닥 동반 상승

- 미국증시가 유로존 재정 위기 우려감이 고조되며 혼조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1,990P선을 이탈하며 소폭 내림세로 출발. 국가지 방단체를 비롯한 기관과 개인의 동반 매수에도 불구하고 11일 연속 이어진 외국인의 매도세가 확대되며 장 초반 주가 낙폭이 확대되기도 했으나, 새 정부의 추가경정 발표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소폭 오름세로 마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힘입어 하루만에 반등에 성공하며 550P선을 회복. 한편, 일본 중국 등 아시아 주요 증시는 유럽 리스크 우려감에 일제히 하락세를 보임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일 유상증자 및 무선충전기 삼성 납품 탈락 루머가 확산되며 급락했던 한솔테크닉스는 관련 루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하루만에 반등, 전일 하락분을 만회함.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 확대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되며 유니퀘스트가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정부의 투자 확대 기대감 및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 성공 소식 등이 전해지며 줄기세포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보임. 반면, 무상감자를 결정한 금호산업은 감사 이후 첫 거래일에 급락했으며, 단기과열종목에서 해제된 에프알텍은 하한가를 기록

종목/이슈	내 용
한솔테크닉스(004710) ▶21,250(+8.97%)	루머 관련 우려감이 해소되며 급등세 - 전일 유상증자 및 무선충전기 삼성 납품 탈락 루머가 확산되며 7%이상 급락했으나, 관련 루머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며 급등세 - 지난 1월 완료된 증자로 550억원의 자금을 확보한 상태로 추가적인 유상증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
유니퀘스트(077500) ▶12,800(+5.35%)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 확대에 따른 수혜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판매가 확대됨에 따라 휴대폰 부품업체인 자회사 드림텍의 스마트폰용 전기회로 물(PBA) 매출이 증가하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 동사는 꾸준한 실적 개선과 함께 우량한 재무구조를 보유하고 있어,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평가
줄기세포 관련주	정부의 투자 확대 등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 - 미래창조과학부가 새 정부의 핵심부서로 부각됨에 따라 정부의 투자 확대가 기대되는 가운데 줄기세포를 이용한 질병 치료 소식 등이 전해지며 강세 - 파미셀(005690, +7.63%), 바이오니아(064550, +6.47%), 차바이오앤(085660, +6.01%), 에스텍파마(041910, +4.80%), 신성엘에스(016100, +3.63%) 등 강세

52주 신고가

종목	내 용
농심(004370) ▶307,000(+3.89%)	- 백두산 수원지의 차별화된 맛을 부각시킨 '백산수'가 출시 100일만에 대형마트 점유율 3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에 신고가 경신. 출시 초기단계임을 감안시 향후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
넥스지(081970) ▶5,340(상한가)	- 보안 소프트웨어를 영위하는 업체로서, 보안 통합 솔루션 사업 강화를 위한 국내 주요 통신사업자로서의 피인수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아울러, 최근 사이버테러 문제가 이슈화 되며 관심이 증폭됨
한국토지신탁(034830) ▶1,575(+8.62%)	- 신용등급 상향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신규 수주 확대 및 대손비용 감소 등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며, 국내 3대 신용평가사로부터 업계 최초 신용등급 'A-'를 받음
넥스트리밍(139670) ▶7,620(+7.17%)	- 모바일 미디어플레이어 SW 업체로서, 모바일 동영상 편집 솔루션인 '키네마스터' 출시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신고가 경신

주: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이거나 첫신고가를 경신한 주요 종목들로 추천종목과는 별개이오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SK하이닉스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SK하이닉스 (000660)	29,250 (+2.3)	28,600 (3/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갤럭시S4 등 신규 스마트폰 출시로 모바일 DRAM의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신규 스마트폰 및 SSD 보급 확대로 NAND수요도 견조할 것으로 전망됨 - 업황 개선에 따른 본격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이 예상되며, 하반기 PC 수요 회복 시에는 PC DRAM 공급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도 상존
우주일렉트로 (065680)	27,900 (+0.9)	27,650 (3/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경쟁업체 대비한 경쟁력 열위를 극복하여 주요 고객 내에서 점유율 확대 추세 - 금년 1분기에는 2011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13%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할 전망 IMT(In Mold Technology), FFC(Flexible Flat Cable), 자동차용 커넥터 등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 부각 가능성 상존
기아차 (000270)	56,100 (+2.0)	55,000 (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월 중국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함에 따라 1월 세계 시장 점유율도 사상 최고치인 3.9%(전년동월 3.5%)를 달성. 또한 최저 수준의 재고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3월과 5월에 K3와 K7의 미국 판매를 시작으로 신차 모멘텀 기대 - 신모델 출시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등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를 감안할 때 환율 안정 시에는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에스엘 (005850)	14,450 (+7.4)	13,450 (2/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S부품 비중 상승(에스엘루막스), GM납품 물량 증가(에스엘연대), 제품믹스 개선(에스엘미국) 등으로 지분법 이익 견고. 글로벌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 현대의 중국 3공장과 브라질공장 가동효과, 미국 테네시공장의 램프 생산능력 확장, 동사 램프를 탑재하는 신모델 출시 등을 감안할 때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예상
엠씨넥스 (097520)	14,200 (+77.3)	8,010 (1/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하반기부터 휴대폰 카메라 모듈을 삼성으로 공급하기 시작, 향후 물량 확대 가능성 상존. 또한 ZTE, 화웨이 등 중국 로컬업체와의 거래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특히 ZTE의 신규 최신행 스마트폰 '그랜드S'에 13M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기 시작하는 등 중국향 매출 신장 기대 -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의 경우, 높은 시장점유율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 중. 향후 미국 내 자동차 후방카메라 의무장착 법안 추진 시 수혜 예상
에스맥 (097780)	17,050 (+3.3)	16,500 (1/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IT기기에 적용이 되는 입력모듈(Key Module, Touch Screen Module 등)을 개발/생산하는 업체로, 태블릿 PC 시장 성장과 삼성전자 내 점유율 확대에 힘입어 안정적인 성장세 지속 전망 - 터치패널용 핵심부품인 ITO 센서 라인을 증설하여 2013년 상반기 내에는 내재화 비율 100%를 달성할 전망. 여타 터치패널 관련주 대비 저평가 매력 상존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SK하이닉스, 기아차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통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현재 에스맥 발행주식의 자기주식취득 위탁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유한양행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3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유한양행 (000100)	190,000 (+2.2)	186,000 (3/21)	918	64	130	12,330	15.4
- 신제품 효과로 1분기 실적 호조가 전망되며, 하반기에는 API(원료의약품)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한화학(100% 지분 소유)의 증설효과가 예상됨 - 유한킴벌리의 프리미엄 기저귀의 중국 수출 확대와 바이오 회사 지분투자 및 외부 신약 파이프라인 확보를 통한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 유효 - 장기 성장성, 실적 모멘텀, 업종 내 상대적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LG전자 (066570)	81,400 (+4.9)	77,600 (2/26)	53,357	1,562	1,116	6,197	13.1
- 2012년 휴대폰 부분의 흑자 전환에 성공한 가운데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 및 ASP 상승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 가전, TV, 에어컨 부분의 견고한 경쟁력을 감안할 때 글로벌 Peer그룹 대비 상대적 저평가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SK이노베이션 (096770)	162,500 (-4.7)	170,500 (2/06)	67,991	2,326	1,731	18,578	8.7
- 유가 안정과 정제마진 개선, PX/ BTX 등 주요 화학제품 스프레드 확대 등으로 1분기 실적 개선 예상 - 정유사업의 실적 변동성 축소로 인한 이익 개선과 석유개발사업은 안정적인 이익 규모를 유지할 전망							
대덕GDS (004130)	18,200 (-0.5)	18,300 (1/21)	578	58	49	2,156	8.4
- 모바일기기에 고화소 카메라 모듈 탑재 확대는 주력제품인 Rigid Flexible (R/F) FPCB 판매 호조를 견인할 전망 - FPCB와 모바일 메인보드용 HDI 매출비중이 2012년 55%에서 2013년 63%까지 확대되며, 가전에 탑재되는 범용 PCB 제품 비중이 축소되는 대신, 직하형 LED TV에 탑재되는 고부가가치 LED BAR 공급이 확대됨에 따라 기존 사업부의 제품 mix 개선에 따른 이익률 개선 기대							
농심 (004370)	307,000 (+12.9)	272,000 (1/3)	2,148	133	128	22,127	13.9
- 삼다수사업 철수, 벤조피렌 이슈 등으로 주가 부진했으나, 자체 브랜드 '백산수' 런칭과 프리미엄 신제품 (블랙신컵 및 신라면블랙) 판매 호조, 수출 증가 등을 주목할 필요 - 라면시장 점유율 회복, 경쟁구도 안정화, 제품라인업 강화, 기저효과 등으로 수익성 개선 추세 지속 전망							
NHN (035420)	268,000 (+17.8)	227,500 (1/2)	2,694	779	580	13,205	20.3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NHN, SK이노베이션, LG전자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유통: 백화점에 집중해야 할 시기

■ 3월 현재 백화점 매출 늘어나는 중

백화점 3사의 실적 개선에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3월 현재 백화점 3사의 기존점매출은 전년동기대비 3~9% 늘어나고 있다. 지난 1~2월 기록했던 소폭의 역신장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품목별 매출동향을 보면, 남성 및 여성의류 매출이 호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가전과 생활용품 매출도 늘어나고 있다. 스포츠/아동 상품군의 매출증가율은 여전히 두 자리 수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매출 동향의 특징 중 하나는, 전년 동기간은 2012년 윤달 효과로 인해 혼수 관련 매출이 부진했던 반면, 최근에는 의류 및 생활용품, 가전제품 등 전반적인 상품군에서 혼수 관련 매출이 나타나면서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혼수 관련 매출은 3월 중반 이후부터 5월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백화점 매출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 3월 소비심리 104, 전월 대비 2P 상승

한국은행이 조사한 3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4를 기록하며 전월대비 2P 높아졌다.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99과 101 구간에 머물다가 2013년 1월부터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3월 소비심리는 현재와 향후의 생활환경 및 경기판단, 소비지출전망 등 전반적인 설문 항목에서 2월 보다 개선되었으며, 특히 소비지출전망을 소득분위로 나누어 볼 때 월간 소득 300만원에서 500만원 구간의 중상위 소득층의 개선폭이 두드러졌다. 우리는 소비심리 개선이 3월 현재의 소비경기 호조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향후 소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한다.

■ 2분기 백화점 실적 개선폭 더 커질 것

3월 이후 2분기 백화점 매출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3월 현재 백화점 3사의 남성 의류 매출은 5~10%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 의류 매출 증가는 통상 소비경기회복의 신호로 해석되어왔다. 게다가 이미 일부 발생하고 있는 혼수 관련 매출은 5월까지 지속될 전망이며, 전년동기대비 낮은 base는 3분기까지 지속된다. 백화점 3사에 집중할 시기로 판단된다. 백화점 3사의 개별적인 매출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기존점매출증가율은 롯데백화점이 가장 높다. 중상위 소득계층의 소비심리 개선과 아웃렛몰 고성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의 기존점매출증가율이 가장 낮은데, 그 이유는 인천점 리뉴얼 효과로 인해 전년동기 base가 가장 높았기 때문이다. 현대백화점은 백화점 3사 중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기존점매출증가율 개선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무역센터점 리뉴얼과 MD 개편효과가 4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며, 7월부터는 큰 폭의 매출 증가가 예상된다.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28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두산(000150)

매수(유지)

목표가: 175,000원(유지)

종가(3/27): 128,500원

우선주의 매력도 존재한다

■ 양호한 1분기 실적

두산의 1분기 자체 매출과 영업이익(공통비용을 제외한 사업부의 합계)은 각각 4,709억원과 380억원으로 추정되어 당사의 기존 전망인 4,650억원과 351억원을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난 3분기 영업이익 229억원을 저점으로 4분기 371억원으로 이어진 실적개선이 지속된 점이 긍정적이다. 이러한 실적은 전자사업부에서 스마트폰용 FCCL의 매출호조를 통해 예상대로 견조한 수익성이 이어진 반면, 모트롤의 영업이익이 완성업체들의 춘절 이후의 가동률 개선에 따라 예상보다 높은 39억원을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굴삭기 시장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모트롤은 고객다변화와 원가경쟁력을 통해 지난 하반기 21억원 적자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수익성 개선세에 진입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해외 M&A는 시너지 강화차원에서 이루어질 전망

두산그룹 내부적으로 두산은 OLED기술(특히 화이트 관련) 확보를 위해 독일의 노바엘이디 인수를 고려중이고, 두산중공업은 원전관련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이탈리아의 안살도 인수를 추진중이다. 아직 인수여부 뿐만 아니라 가격 등 세부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산그룹은 기존 사업의 시너지 강화를 위해 해외 M&A를 추진중에 있고, 과거 밥캣의 사례를 통해 무리한 경영권 프리미엄을 통한 인수합병은 자체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경우 이번 인수사재가 주가 및 기업가치에 부정적일 가능성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 역시 투자매력이 충분함

두산의 보통주 뿐만 아니라 우선주 역시 투자매력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두산 우선주는 20일 평균 거래대금이 3.4억원(시가총액 1,793억원)으로 유동성이 충분하지 않은 단점은 존재한다.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주당 3,550원의 배당금(중간 500원+기말 3,050원)이 지급되었는데, 두산의 견조한 현금흐름과 주주친화정책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주당 배당금은 하향조정될 가능성이 낮아 현 주가 기준으로 연간 8.7%의 배당수익률이 기대된다. 더욱이 우선주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의 특성상 보통주 대비 할인이 불가피하지만 동사의 높은 기업투명성 및 주주친화정책을 고려할 때, 현재 우선주 가격이 보통주 가격의 31.6%에 불과한 높은 할인율은 좁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시가총액 상위 20대 우선주 종목의 주가는 보통주 대비 평균적으로 35.8%에 머물고 있으며, 두산 우선주 주가는 보통주 대비 지난 3년간 21.7~42.3%에서 움직임).

	매출액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EPS (원)	증감률 (%)	EBITDA (십억원)	PER (x)	EV/EBITDA (x)	PBR (x)	ROE (%)
2010A	3,753	905	849	816	33,072	243.5	981	4.6	4.9	1.4	30.7
2011A	4,033	409	403	352	15,521	(53.1)	496	9.1	9.4	1.2	9.5
2012F	3,834	205	122	110	3,909	(74.8)	291	33.0	14.0	1.1	2.7
2013F	4,086	553	412	342	14,306	265.9	560	8.9	7.3	1.1	10.4
2014F	4,350	636	501	415	17,390	21.6	657	7.3	6.1	1.1	12.4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2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메리츠화재(000060)

매수(유지)
목표가: 15,400원(유지)
종가(3/27): 12,500원

RBC비율 부담이 촉발한 다사다난한 2월

■ 추가상각비용 환입 82억원에 힘입어 2월에는 178억원의 많은 이익 발표

2월의 순이익을 178억원으로 발표했다. 전월 93억원에서 예상대로 크게 회복되었다. 회복을 지원한 주 요인은 (1)판매수수료 분급에 따른 추가상각환입(82억원) (사업비율 하락으로 연결), (2)장기보험 위험손해율의 하락이었다. 지난 달에 이어 일반보험의 고액사고(3건)가 발생해 당월 일반보험 손해율이 90%를 초과한 것은 아쉽다. 자산운용측면에서는 약 62억원(단기매매계정 5억원, 매도가능증권계정 57억원)의 (+)요인이 반영되어 있는데 전월(53억원)보다는 늘었다.

■ 회기말에는 당월 적자 가능성 높아, 2월까지 누적 순이익 1,317억원에서 하락 예상

2월에는 인보험 신계약이 45억원으로 금기 중 세 번째로 적었고, 전체 보장성보험 신계약은 46.3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추가상각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동시에 2월에는 설계사와 일부 GA에 대해 수수료 지급체계 변경을 통해 선지급 부담을 낮춤에 따라, 기존에 비용처리한 추가상각 부담이 환입되는 효과로 이어졌다(FY12 누계 719억원). 수수료 분급제는 초년도 수수료를 매월 동일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골자이고 모든 설계사와 일부 GA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분급제는 2월 이후부터 지속할 예정이다.

2월까지 누적 순이익은 1,317억원이며, 1~2월 합산 순이익은 4Q(1~3월) 순이익 전망치 245억원보다 많은 271억원이다. 그렇지만, 회기말인 3월에는 (1)실손단독상품으로의 실손특약 교체를 앞둔 절판 마케팅에 따른 비용 부담 증가, (2) 매도가능증권감액 기준 변경에 따른 부담이 약 25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당월 적자가 불가피해 보이므로 우리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실적 측면의 관건은 특약으로 부가되는 실손의료보험담보가 단독형으로 바뀌는 4월 이후의 인보험 성장세이다.

■ 3자 배정 유상증자로 급한 불 꺾지만, 신임 감독당국 수장들의 의중 파악 필요

지난 21일 싱가포르투자청(GIC)을 대상으로 55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했다. 유상증자 이전에 있을 현금배당을 감안하면 RBC비율 제고효과는 5%p에도 모자란다. 자본확충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여전한 것이다. 우리의 목표가는 전일 종가에 비해 23% 높지만, 당분간은 단기 상승 가능성은 낮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새로운 수장들이 임명된 만큼 조만간 윤곽을 드러낼 적정 배당 수준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금융정책 방향을 통해 규제 리스크의 전개 방향을 가늠하는 것이 우선이다. 목표가는 12월 기준 BPS 12,088원에 목표 PBR 1.28배를 부여했다. 목표 PBR은 ROE 14.9%, 성장률 2.0%, 자본비용 12.1%를 적용한 결과다. 전일 종가는 FY13 전망 대비 PBR 1.0배, PER 7.9배 수준이다

	경과보험료 (십억원)	영업이익 (십억원)	세전이익 (십억원)	순이익 (십억원)	수정 순이익 (십억원)	수정EPS (원)	증감률 (%)	수정 BPS (원)	수정PER (배)	수정 PBR (배)	수정 ROE (%)
2010A	3,526	161	257	121	132	1,484	21.8	8,189	6.2	1.1	20.6
2011A	4,037	221	269	165	165	1,702	14.7	9,298	7.6	1.4	20.8
2012F	4,522	181	336	129	129	1,336	(21.5)	11,247	9.4	1.1	14.4
2013F	5,055	210	348	153	153	1,585	18.6	12,485	7.9	1.0	14.1
2014F	5,068	245	366	179	179	1,852	16.8	13,940	6.7	0.9	14.8

*상기 보고서는 2013년 3월 27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니들이 게맛을 알아?

- ▶ 2013년 외국기업 현지 IR 참관기: 중국 4개, 일본 2개 등 총 6개 기업 참여
(중국: 완리, 에스앤씨엔진그룹, 차이나그레이트, 차이나킹/일본: SBI액시즈, SBI모기지)
- ▶ 중국업체들의 신뢰도는 제고될 수 있으나 성장성, 마케팅도 고민해야 할 시점
- ▶ 6개 기업 중 투자 유망종목은 SBI모기지: 국내에 없는 저리스크 사업구조

■ 2013년 외국기업 현지 IR 참관기

국내상장 외국기업 IR참관.
기업들의 장단점이
실제와 다른 부분 존재

‘니들이 게맛을 알아?’

과거 롯데리아 광고에서 나왔던 이 콘티는 ‘직접 먹어보지(겪어보지) 않고는 맛을 논하지 말라’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며 대중들에게 신선함을 선사함은 물론, CF계에 파란을 일으켰다. 실제로 해외의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가 확산됨에 따라 시장점유율을 잠식당하던 동 업체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광고효과가 있었다.

지난 3월 18일~22일 거대소 주관으로 국내상장 외국기업 현지IR 행사가 있었다. 대상기업은 중국업체 4곳, 일본업체 2곳 등 총 6개 기업으로 현지 사업장 견학, PT, CEO Q&A 형식 등으로 진행되었다. 일정이나 언어의 장벽 등으로 인해 기업현황을 자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은 있었으나, 시장의 우려가 많은 외국기업에 대해 “먹어보고 맛을 판단하자”라는 기회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내상장 중국기업들의 사업장은 실체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업체들은 놀라운 규모의 공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작업장의 구성이 세련되지 못하고 가동률에 일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실제로 제품들이 양산되고 있었고 그 제품들을 직접 만져보거나 체험할 수 있었다.

또한 이번 행사는 중국과 일본 현지의 경기 분위기와 업황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한국에서 문서와 데이터만으로 판단하는 것과 다른 실제적인 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었다.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직접 먹어보기 전까지는 음식 맛을 알 수 없듯이 직접 보고 듣지 않으면 외국기업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명제는 타당했다. 말 그대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었다. 다만 중국기업들의 경우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보다 세련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 중국기업의 신뢰도 :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노력은 하고 있다

중국기업들은
투명성 재고를 위해
나름의 노력은 하고 있다

국내상장 중국기업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PER 등 밸류에이션 지표는 싸보이지만 믿을 수가 없어서 투자하기 어렵다’라고 요약될 수 있다. 일단 믿을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지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실제로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감사의견을 국내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는 기업들이 늘어났다. 물론 시공간의 차이로 인해 본토에서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것은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나, 최소한 국내 회계법인의 ‘적정’의견 조차 받지 못하는 일부 국내 기업보다는 나은 점수를 줄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각 회사들은 여의도에 IR 대행사와 공시대리인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한국어가 미숙한 대리인들이 있기에 투자자들과의 거리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최근에는 이런 상황에 대한 자구책으로 투자나 증시업무 경험이 있는 한국인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완리는 금번 주총에서 KDB 출신의 한국인 김종섭씨를 사내이사에 선임하는 안건을 내 놓았다. 차이나그레이트는 한국거래소 출신 황성윤씨가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차이나킹 역시 거래소 출신 김병재씨가 사외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등 한국투자자들과의 거리감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표 1〉 IR참여 중국/일본 기업 회계법인 현황

구분	2010		2011	2012.3Q	한국국적 사외이사		
완리	Deloitte	안진회계법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	김종섭(KDB)
차이나그레이트	다산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다산회계법인	황성윤(거래소)		
에스앤씨엔진그룹	Deloitte Touche Tohmatsu CPA Ltd.	Deloitte Touche Tohmatsu CPA Ltd.	Deloitte Touche Tohmatsu CPA Ltd.	Deloitte Touche Tohmatsu CPA Ltd.	-		
차이나킹	한영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신한회계법인	김병재(거래소)		
SBI 액시즈	Deloitte	안진회계법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송중석(노무라증권)
SBI 모기지	Deloitte	안진회계법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	Deloitte	안진회계법인	서봉규(김앤장법률) 임준식(일본 삼성)

주1. 완리 김종섭씨는 사내이사 선정 예정

주2. 한국국적 사외이사의 괄호는 과거 소속 직장을 표시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 한국투자증권

■ 사실 중국기업은 신뢰도보다 성장성과 효율성이 문제다

성장성과 효율성의 부재,
매출 성장을 둔화와
이익률 저하로
효율성 제고 노력 요망

‘신뢰도’가 주가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는 하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금번 IR에 참가한 4개의 중국기업은 코스닥 시장평균 대비 낮은 멀티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러한 저평가는 신뢰도가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익의 성장성이 낮기 때문에 저평가를 받는 부분도 상당하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KOSDAQ에는 PER 4~5배의 종목들이 항상 있다. 하지만 이들은 단순히 ‘싸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상승하지는 않는데, [주가 = 이익 X 멀티플(배수)]라고 가정할 경우, 이익의 성장세가 없거나 소폭 상승에 그칠 경우 할인거래는 불가피하다. 이러한 ‘만년 저PER주’들은 이익의 폭발적인 증가세가 전망될 때에 높은 멀티플이 함께 용인받으며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번에 참가한 중국기업들의 경우 2013년 경영전망을 소극적으로 제시하는 기업들이 많았다. 게다가 급격한 인건비 및 원가 상승으로 인해 이익률은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모습을 보였다.

차이나그레이트의 경우 2013년 매출은 전년대비 10% 수준의 성장을 예상했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전망했고, 에스앤씨엔진그룹은 전년대비 5% 수준의 미미한 매출 성장을 예상하고 있었다. 완리는 올해 20~25%의 매출 신장이 기대되지만 관관비와 연료비의 상승으로 이익규모는 2011년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차이나킹 역시 연간 15% 이상의 매출 성장에도 불구하고, 과거 50%에 육박하던 영업이익률은 원가상승으로 인해 30~35%선을 보일 전망이다.

실제로 생산라인 운영의 효율성에 있어서도 국내 업체들과는 차이점을 보였다. 한국의 공장들은 뾰뾰한 작업라인에 근로자들이 분주히 일하고 있는 가운데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것이 연상된다. 하지만 실제 견학한 완리, 차이나그레이트 등은 공장 부지에 비해 라인 설비가 적게 들어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고, 가동률 역시 높아 보이지 않았다. 증설과 부지 이전에 따른 라인 교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업체들과의 괴리감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그나마 에스앤씨엔진그룹의 기어사업장이 양호한 모습이었다. 중국기업들의 사업장 규모가 한국에서는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수준이기 때문에 제품의 생산규모 자체를 의심하는 것은 선입견일 수 있겠지만, 비용을 절감해야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성 제고에 대한 해명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부분은 향후 중국기업들이 해소해야 할 숙제라고 여겨진다.

[그림 1] 완리 신공장 내부



자료: 완리,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에스앤씨엔진그룹 내부



자료: 에스앤씨엔진그룹, 한국투자증권

■ 제품의 품질에 비해 아쉬운 마케팅 능력

생각보다 좋은 품질
마케팅 능력이 아쉽다.

중국기업들을 보고 놀란 점 중의 하나는 제품의 품질이 생각보다 좋다는 것이다. 완리가 제작하고 있는 테라코타 타일은 비교적 간단한 공법으로 건물의 외벽에 설치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품질도 우수하면서 건물의 디자인까지 고려한 제품이었다고, 엔틱형 타일의 경우는 한국의 고급 식당에서나 볼 수 있는 세련된 디자인이었다. 차이나그레이트의 캐주얼 의류와 신발 역시 한국의 SPA 브랜드 제품들과 디자인이나 품질면에서 큰 차이점이 없어 보였고, 차이나킹이 생산하는 차는 한국에서 고가에 팔리는 보이차보다 저렴하면서 깊은 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는 투자자들은 이를 몸소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기업들이 만드는 상품의 가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과거 부실 중국기업의 트라우마로 인해 중국기업 실체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실제로 중국의 4개 업체와 미팅을 할 때에는 통상 CEO, CFO, 기타 IR관련 임원들이 참여를 한 반면, ‘마케팅’관련 임원이 배석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물론 중국의 특성상 각 성의 유통권을 쥐고 있는 총판과 이들이 관리하는 판매상으로 이어지는 유통라인이 한국과 다르다는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이 쉽게 생각할 수 있는 홍보용 직영점 운영, 홈쇼핑으로의 판매확대, 해외 안테나 점포 설치 등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었다. 한국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기업이 좋다는 말로만 홍보하기 보다는 눈으로 보고 실감할 수 있는 홍보와 마케팅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그림 3] 완리 테라코타 타일



자료: 완리, 한국투자증권

[그림 4] 차이나그레이트 신발



자료: 차이나그레이트, 한국투자증권

■ 체감 경기상황 : 중국은 COLD, 일본은 H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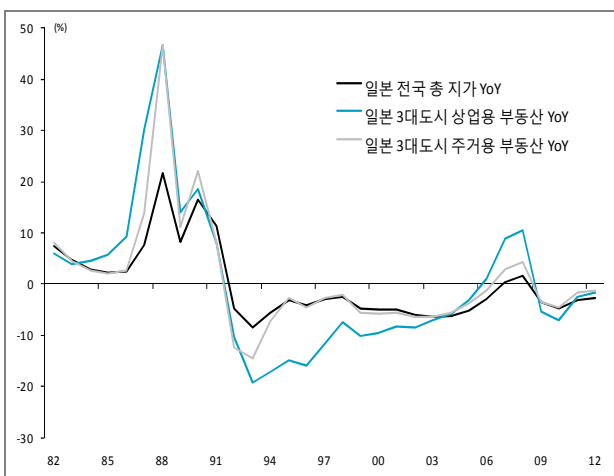
중국의 2, 3선 도시의
내수경기는 경색
일본은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상존

중국기업에 대해 공장의 가동률과 성장성에 대한 문의를 했을 때 이구동성으로 돌아왔던 답변은 '경기가 좋지 않다'라는 멘트였다. 중국 시진핑 정부가 출범되면서 내수 부양 및 농촌의 도시화에 따른 소득분배로 인한 소비 진작을 예상했지만, 실제로 중국기업들이 느끼는 내수 체감경기는 차가웠다. 국내에 상장한 중국기업들의 대부분이 2, 3선 도시들을 타겟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까지 중국의 정책 효과가 발휘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일본 업체들의 경우 아베 내각 집권 후 실시된 '아베노믹스'로 인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현지에서 만난 모 회사 직원은 수 년간 동결되어 있거나 삭감이 당연시 되던 본봉이 올해는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졌다는 말도 전했다. 특히 일본의 부동산 시장이 부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일본 국토교통성은 전국 주택용지 공시지가가 전년대비 1.8%, 상업용지가 2.1%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하락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하지만 하락세가 둔화되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특히 일본 리츠(REITs) 시장의 활발한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 최근 TSE REIT index는 고공행진을 펼치고 있다. 아베노믹스로 인한 일본 부동산 시장에 상승 기대감과 함께 이에 따른 투자자금 유입의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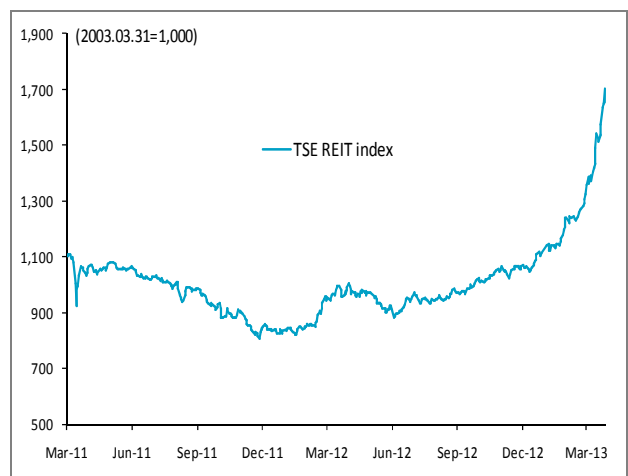
이번 IR행사에 참가한 일본기업 SBI모기지의 경우 주택 및 부동산 모기지를 취급하는 회사로서, 향후 5년간 연평균 30%의 순이익 증가를 전망했고, 매크로 측면에서의 근거로 일본의 엔화약세와 부동산가격 하락세 진정, 유동성 증가 등을 제시했다. 현재 진행 중인 고정금리 모기지 시장 내 동사 점유율 상승을 감안할 시 향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그림 5] 일본 공시지가 증감률 연간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그림 6] TSE REIT index 최근 추이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관심종목 : SBI모기지

일본 부동산 시장의 성장과
연관되어 있는
'SBI모기지' 관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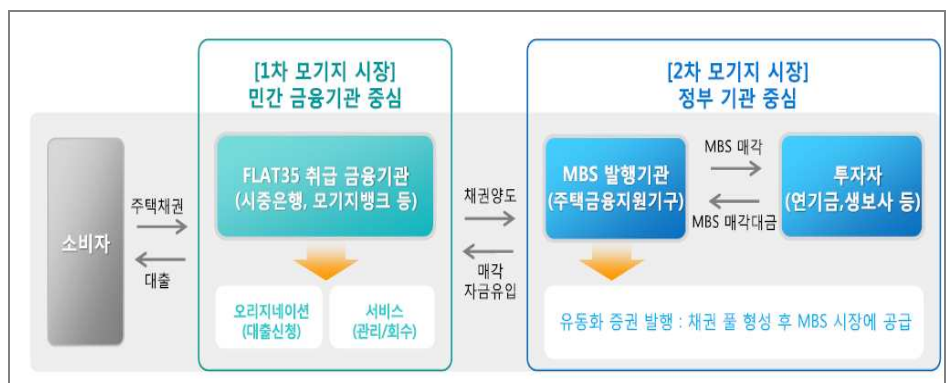
동사는 한국시장에 존재하지 않는 모기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이다. 사업모델은 간단하다. 주택을 사고싶어하는 소비자가 동사와 같은 모기지업체에 대출을 요청하면 모기지업체는 심사 후 돈을 빌려준 뒤 대출채권을 발행한다. 이 대출채권은 일본의 주택금융지원기구(JHF, Japan Housing Finance Agency)에 의해 100% 매입되고, 주택금융지원기구는 대출채권을 바탕으로 MBS를 발행하여 매각한다. 이 매각된 자금이 다시 모기지업체에 들어오게 되는 구조로서, 모기지업체의 경우는 리스크를 이전함과 동시에 무위험으로 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이다.

동사의 대표적인 상품은 JHF가 만든 'FLAT35'라는 상품으로, 연이율 1.99%로 35년간 상환하는 장기고정금리 모기지 상품이다. 현재 FLAT35의 판매는 모기지업체가 거의 전담을 하고 있는데, 대형은행의 경우 고정금리 상품보다는 변동금리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수익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사의 경우에는 낮은 이율에 상품을 팔아서 수수료를 취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품자체로의 경쟁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업망이다. 통상 일본 내 모기지업체들의 경우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기 때문에 은행과 경쟁이 되지 않지만 동사의 경우는 12년말 139개에서 13년 3월 기준 170여개의 점포확장이 진행 중에 있으며 보험대리점과의 연계판매로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게다가 물가상승률 2%를 천명하고 있는 아베노믹스 속에서 향후 금리가 상승추세에 접어들 것이 자명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본 주택담보대출 시장 내 15% 수준에 불과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동사의 성장이 기대된다.

현재 동사의 주가는 컨센서스 기준 2012년 예상 EPS 1,207원 감안 시 PER 10.4배, 2013년 예상 EPS 1,661원 감안 시 PER 7.6배로, 17% 수준의 ROE를 감안할 시 투자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7] FLAT35 사업모델



자료: SBI모기지

국내상장 중국/일본기업 IR 참관기

<참조 1> IR참여 기업 2012년 3Q 기준 손익현황

국적	기업명	구분	각국 통화기준		원화 환산기준(십억원)		향후 전망
			2011	2012.3Q	2011	2012.3Q	
중국	완리	매출액	1,038.2	958.3	186.7	172.4	2013년 매출성장률 +20~25% YoY 전망
		영업이익	281.2	182.0	50.5	32.7	
		당기순이익	202.9	113.3	36.5	20.4	
	에스앤씨엔진그룹	매출액	1,187.5	839.0	213.6	150.9	2013년 매출성장률 +5% YoY 전망 OPM 25% 수준
		법인세차감전순익	308.7	207.4	55.5	37.3	
		당기순이익	240.1	164.0	43.2	29.5	
	차이나그레이트	매출액	2,425.4	1,994.1	436.3	358.7	
		영업이익	371.1	281.4	66.7	50.6	
		당기순이익	271.5	201.0	48.8	36.2	
	차이나킹	매출액	1,333.2	715.5	239.8	128.7	2013년 매출성장률 약 +15% YoY 전망
		영업이익	535.9	246.4	96.4	44.3	
		당기순이익	382.4	170.5	68.8	30.7	
일본	SBI 모기지	순영업수익	9,244.8	8,493.5	130.2	119.6	향후 5년간 순이익 CAGR 30%
		법인세차감전순익	3,067.9	2,715.1	43.2	38.2	
		당기순이익	1,757.1	1,676.6	24.7	23.6	
	SBI 액시즈	매출액	4,790.9	3,603.8	67.5	50.8	
		영업이익	1,130.2	674.7	15.9	9.5	
		당기순이익	642.5	437.5	9.1	6.2	

- 주1. 각국 통화기준 금액은 중국기업 백만RMB, 일본기업 백만엔으로 표시
 - 주2. 원화 환산기준 수치는 상승을 확인을 위해 2011년, 2012년 3Q를 동일한 환율로 적용함
 - 주3. 중국기업 2012.3Q 적용환율 179.87원/RMB, 일본기업 14.0826원/1엔 적용
 - 주4. 적용환율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의 개정에 따라 기간 평균환율(손익계산서항목)을 적용
 - 주5. 2012년 3Q는 누적금액이며, 차이나킹은 6월 결산 법인으로 2012.3Q의 수치는 2012년 반기 기준 수치임
 - 주6. 향후 전망은 기업 IR내용을 토대로 작성
- 자료: 각 사 감사보고서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3월 28일 현재 상기업체의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담당자와 배우자는 3월 28일 현재 상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당사 리서치본부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자료로써 고객의 투자 결정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50.82	1,948.71	1,977.67	1,983.70	1,993.44	1,993.52	
	등락폭	-8.59	-2.11	28.96	6.03	9.74	0.08	
	등락종목	상승(상한)	298(2)	429(6)	544(7)	384(1)	399(2)	411(5)
		하락(하한)	494(7)	370(2)	266(3)	411(1)	407(1)	387(0)
	ADR	91.83	95.42	98.23	99.89	101.54	100.36	
	이격도	10 일	98.29	98.47	100.06	100.41	100.94	100.99
		20 일	97.60	97.65	99.21	99.57	100.08	100.11
	투자심리	40	30	40	50	50	50	
	거래량 (백만 주)	258	252	272	299	347	363	
거래대금 (십억 원)	3,489	3,303	3,408	4,009	3,794	3,394		
코스닥	코스닥지수	544.56	551.25	549.56	549.90	548.72	552.64	
	등락폭	-1.70	6.69	-1.69	0.34	-1.18	3.92	
	등락종목	상승(상한)	374(5)	583(6)	536(8)	436(13)	399(8)	515(11)
		하락(하한)	546(11)	341(11)	377(5)	476(1)	517(2)	390(2)
	ADR	97.90	102.11	102.46	102.64	103.19	102.67	
	이격도	10 일	99.60	100.67	100.20	100.15	99.95	100.69
		20 일	100.73	101.71	101.21	101.06	100.65	101.19
	투자심리	60	60	60	60	50	50	
	거래량 (백만 주)	457	403	378	385	435	401	
거래대금 (십억 원)	1,952	1,897	1,800	1,948	2,030	1,838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1,551.9	875.4	968.1	192.8	161.5	214.4	71.3	31.0	168.4	28.3
	매도	1,587.1	1,026.2	774.8	138.8	144.4	243.6	48.8	27.3	154.9	35.5
	순매수	-35.3	-150.8	193.3	54.1	17.1	-29.2	22.5	3.6	13.5	-7.2
	03 월 누계	1,184.1	-2,600.9	1,402.3	205.9	103.9	-543.1	109.2	-12.7	761.4	14.4
	13 년 누계	495.5	-2,921.5	2,740.9	1,139.4	486.6	-1,865.9	-69.4	28.5	2,232.0	-314.9
코스닥	매수	1,639.8	95.7	106.2	16.4	10.2	28.8	13.7	3.3	27.1	15.7
	매도	1,699.3	71.2	70.6	11.4	10.2	22.8	6.0	2.2	15.3	16.3
	순매수	-59.5	24.5	35.6	5.1	0.0	6.0	7.7	1.1	11.9	-0.6
	03 월 누계	-356.2	350.9	88.7	7.1	2.3	-21.6	-38.8	16.5	76.1	-83.4
	13 년 누계	-994.7	652.0	579.7	81.1	30.7	126.5	-24.4	3.1	316.4	-237.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도
	순 매 수		
유통업	10,543	화학	-21,189
전기가스업	5,534	운수장비	-14,200
서비스업	4,494	철강및금속	-6,723
삼성물산	6,737	삼성중공업	-14,248
기아차	5,760	LG화학	-5,059
한국전력	5,316	롯데케미칼	-4,436
현대모비스	4,197	POSCO	-4,341
KODEX 200	3,331	현대중공업	-3,887

	연 기 금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16,728	화학	-12,401
서비스업	5,848	운수장비	-7,426
금융업	5,750	증권	-2,075
삼성전기	7,925	삼성중공업	-8,402
삼성물산	7,396	LG화학	-8,283
기아차	6,678	대우인터내셔널	-6,101
삼성테크윈	5,181	LG	-4,889
제일모직	3,638	롯데케미칼	-4,446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도
	순 매 수		
서비스업	3,242	전기,전자	-4,904
운수장비	2,493	기계	-1,559
화학	2,374	건설업	-1,276
대우조선해양	1,373	삼성테크윈	-2,363
현대미포조선	1,077	현대차	-1,800
LS	1,069	KODEX 레버리지	-1,696
OCI	980	두산중공업	-1,409
LG화학	924	SK하이닉스	-1,218

	보 험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9,044	화학	-9,890
전기가스업	5,760	통신업	-3,017
서비스업	5,372	운수장비	-2,973
삼성전자	29,989	SK하이닉스	-10,488
파워 K200	7,333	LG전자	-9,220
한국전력	5,694	LG화학	-8,676
대우인터내셔널	4,373	기아차	-5,142
현대차	2,900	삼성물산	-4,14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도
	순 매 수		
전기,전자	88,109	화학	-29,734
서비스업	43,458	건설업	-6,628
유통업	34,811	보험	-4,359
삼성전자	82,453	삼성중공업	-22,358
삼성물산	20,463	롯데케미칼	-13,702
기아차	19,034	LG화학	-13,652
현대모비스	15,703	현대위아	-10,143
한국전력	14,322	KODEX 200	-8,710
SK이노베이션	10,571	현대건설	-6,779
NHN	10,079	한화케미칼	-5,446
삼성테크윈	7,430	현대하이스코	-4,205
현대차	6,981	SK하이닉스	-3,961
하나금융지주	6,912	삼성엔지니어링	-3,339

	외 국 인		순 매 도
	순 매 수		
건설업	11,387	화학	-49,573
보험	7,260	운수장비	-40,296
기계	6,358	전기,전자	-37,287
LG디스플레이	10,390	삼성전자	-54,264
KODEX 200	10,316	LG화학	-47,128
호텔신라	9,883	기아차	-33,118
현대차	9,652	SK이노베이션	-11,531
현대건설	7,895	현대모비스	-10,960
KODEX 레버리지	6,026	삼성엔지니어링	-7,563
두산중공업	5,597	한국전력	-6,949
LG생활건강	5,270	롯데케미칼	-6,593
오리온	4,851	대우조선해양	-6,467
현대산업	4,106	KODEX 인버스	-6,252

주: 외국인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3,703	방송서비스	-2,242	IT부품	2,816	방송서비스	-960
계약	3,003	인터넷	-1,063	계약	2,769	통신서비스	-837
디지털컨텐츠	1,584	운송장비,부품	-890	출판,매체복제	1,992	기계,장비	-671
씨젠	2,213	CJ오쇼핑	-1,313	에스엠	1,936	루멘스	-947
차바이오앤	1,209	GS홈쇼핑	-930	메디텍스	1,639	KH바텍	-776
유아이엘	932	성우하이텍	-790	게임빌	1,242	SK브로드밴드	-695
에스엠	873	모두투어	-744	이엠텍	1,238	KG이니시스	-689
파라다이스	789	다음	-663	인터플렉스	1,212	GS홈쇼핑	-639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703	금융	-223	IT부품	1,941	방송서비스	-2,024
금속	373	화학	-148	의료,정밀기기	694	운송장비,부품	-1,159
반도체	257	방송서비스	-104	계약	608	반도체	-1,045
네오위즈게임즈	492	태양기전	-299	아트라스BX	929	GS홈쇼핑	-2,289
포스코엔텍	357	한국토지신탁	-223	이엘케이	635	성우하이텍	-1,165
게임빌	304	CJ E&M	-191	게임빌	476	서울반도체	-667
디스플레이텍	203	CJ오쇼핑	-104	휴온스	386	골프존	-376
이라이콤	200	바텍	-103	세코닉스	355	에스맥	-318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13,050	방송서비스	-5,024	운송장비,부품	4,141	계약	-2,887
계약	9,541	운송장비,부품	-1,613	IT부품	3,557	교육	-1,662
의료,정밀기기	5,656	사업지원	-1,165	방송서비스	3,077	연구,개발	-1,224
씨젠	4,301	GS홈쇼핑	-3,887	성우하이텍	4,060	씨젠	-6,045
게임빌	3,299	CJ E&M	-2,142	GS홈쇼핑	3,422	메가스터디	-1,764
오스템임플란트	3,289	씨티씨바이오	-1,935	차바이오앤	3,235	파트론	-1,702
에스엠	3,168	성우하이텍	-1,521	슈프리마	2,754	파라다이스	-1,528
메가스터디	2,805	모두투어	-1,169	안랩	1,682	씨티씨바이오	-1,269
이엠텍	2,497	CJ오쇼핑	-1,137	셀트리온	1,643	AP시스템	-908
차바이오앤	2,314	매일유업	-1,107	CJ E&M	1,213	마크로젠	-849
파트론	1,980	SK브로드밴드	-964	세중	915	SBS콘텐츠헤브	-797
AP시스템	1,973	삼진엘앤디	-901	서원인텍	738	메디텍스	-748
메디텍스	1,923	루멘스	-807	한국토지신탁	736	EMLSI	-705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태광산업	15 일	일성신약	28 일	이트레이드증권	66 일	GS홈쇼핑	10 일
아모레G	14 일	LG패션	28 일	메가스터디	18 일	우리이티아이	8 일
유니드	14 일	하이닉스	18 일	동국산업	9 일	포스코컴텍	6 일
엔씨소프트	12 일	아세아시멘트	15 일	크레듀	8 일	CJ E&M	6 일
두산	11 일	삼영전자	8 일	포스코 ICT	7 일	성우하이텍	5 일
현대차	11 일	세종공업	8 일	KTH	6 일	태웅	5 일
삼성물산	10 일	후성	6 일	태광	5 일	비에이치아이	5 일
SK	10 일	한국셀석유	5 일	유진기업	5 일	인터파크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삼성전자	466,831	SK하이닉스	108,246	씨젠	33,278	GS홈쇼핑	14,755
KODEX 200	128,662	LG전자	51,370	이니텍	6,233	씨젠	10,521
KODEX 레버리지	115,744	현대글로벌비스	24,685	코나아이	5,251	성우하이텍	10,102
현대차	111,079	LG디스플레이	23,795	조이맥스	4,948	CJ E&M	7,927
기아차	97,896	KODEX 레버리지	23,782	메가스터디	4,731	차바이오앤	3,451
현대모비스	63,282	호텔신라	21,190	포스코 ICT	4,466	루멘스	3,306
엔씨소프트	52,807	현대백화점	14,073	컴투스	4,032	에스맥	2,937
삼성물산	51,317	KT	11,012	에이블씨엔씨	3,482	서울반도체	2,731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유통업	34,811	2,172	36,983	IT부품	13,050	3,557	16,607
기계	4,346	6,358	10,703	디지털컨텐츠	5,022	1,154	6,175
음식료품	8,251	481	8,732	의료,정밀기기	5,656	159	5,815
현대차	6,981	9,652	16,633	차바이오앤	2,314	3,235	5,548
KODEX 레버리지	5,806	6,026	11,831	게임빌	3,299	452	3,751
삼성테크윈	7,430	266	7,695	오스텀임플란트	3,289	194	3,483
삼성생명	3,175	3,616	6,790	이앤티	2,497	1	2,498
두산중공업	90	5,597	5,687	바텍	1,821	41	1,861
오리온	792	4,851	5,643	안랩	64	1,682	1,746
휠라코리아	1,277	2,744	4,021	위메이드	889	694	1,584
SK	1,588	1,424	3,013	디스플레이텍	1,144	396	1,540
농심	2,205	592	2,797	인터파크	1,268	125	1,393
한솔테크닉스	1,021	1,414	2,435	이지바이오	1,178	197	1,375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TIGER S&P500선물(H)	42 일	금호석유	21 일	포스코컴텍	10 일	KCC건설	34 일
제일기획	21 일	GS건설	19 일	심텍	9 일	SBS콘텐츠헤브	11 일
LG생활건강	18 일	효성	18 일	덕산하이메탈	9 일	이트레이드증권	8 일
KStar 우량회사채	11 일	LG화학	16 일	모두투어	9 일	메가스터디	7 일
KODEX 구리선물(H)	11 일	현대증권	14 일	하나투어	8 일	OCI머티리얼즈	3 일
진로	8 일	삼성전자	11 일	성우하이텍	6 일	오성엘에스티	3 일
아모레퍼시픽	8 일	삼성엔지니어링	11 일	KCC건설	5 일	신화인터텍	3 일
SKC	7 일	KODEX 철강	11 일	CJ오쇼핑	5 일	젬백스	3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롯데케미칼	-34,282	삼성전자	-378,565	CJ E&M	-18,088	이니텍	-9,759
KODEX 인버스	-27,500	KODEX 200	-125,285	성우하이텍	-11,046	메가스터디	-8,793
KT	-27,329	LG화학	-114,979	SK브로드밴드	-7,029	게임빌	-8,735
현대하이스코	-24,209	삼성엔지니어링	-65,644	루멘스	-6,940	파라다이스	-4,642
LG화학	-21,030	한국전력	-53,295	인터플렉스	-6,337	컴투스	-4,536
삼성중공업	-20,537	하나금융지주	-36,960	모두투어	-5,017	에스엠	-3,522
SK하이닉스	-16,832	KB금융	-34,613	CJ오쇼핑	-4,885	SBS콘텐츠헤브	-3,147
현대글로비스	-15,880	우리금융	-30,608	화인텍	-3,796	에이블씨엔씨	-2,858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종 목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화학	-29,734	-49,573	-79,306	도매	-828	-456	-1,284
의료정밀	238	718	955	미분류	-95	-205	-300
종이, 목재	1,153	493	1,646	섬유, 의류	-11	-34	-45
LG화학	-13,652	-47,128	-60,780	씨티씨바이오	-1,935	-1,269	-3,205
삼성중공업	-22,358	-2,737	-25,095	CJ오쇼핑	-1,137	-405	-1,541
롯데케미칼	-13,702	-6,593	-20,296	삼진엘앤디	-901	-188	-1,089
삼성엔지니어링	-3,339	-7,563	-10,902	SBS콘텐츠헤브	-91	-797	-888
대우조선해양	-2,236	-6,467	-8,703	하나투어	-27	-681	-708
아모레퍼시픽	-231	-4,146	-4,377	디지털시스템	-179	-427	-606
LG전자	-1,762	-1,881	-3,643	네팩스	-213	-355	-568
POSCO	-2,432	-879	-3,311	한글과컴퓨터	-266	-255	-520
OCI	-1,376	-1,723	-3,100	KG이니시스	-407	-82	-489
삼성화재	-926	-2,146	-3,072	제이브이엠	-426	-38	-464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15	22,955
KODEX 200	599	15,803
SK하이닉스	289	8,526
OCI	40	6,349
엔씨소프트	38	5,748
롯데케미칼	19	3,869
현대모비스	12	3,739
현대중공업	17	3,625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CJ E&M	122	4,258
셀트리온	73	3,861
에이블씨엔씨	23	1,969
플렉스컴	65	1,359
씨티씨바이오	41	1,283
다음	12	1,130
차바이오앤	93	1,114
네오위즈게임즈	34	66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270	6,421,749
POSCO	9,552	3,123,664
LG전자	22,911	1,887,898
OCI	7,812	1,249,959
현대차	5,319	1,191,409
SK하이닉스	32,776	965,253
NHN	3,412	921,342
현대모비스	2,687	835,757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10,174	537,187
서울반도체	4,409	126,747
에스엠	1,812	83,736
파라다이스	3,877	82,963
씨젠	1,139	78,734
파트론	2,829	73,567
덕산하이메탈	2,520	68,539
차바이오앤	5,409	63,011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은행	2,163	증권	-3,590
금융업	1,875	운수창고	-3,533
운수장비	1,863	통신업	-2,394
SK하이닉스	2,534	LG전자	-5,705
대우조선해양	1,621	KT	-2,533
기아차	1,585	현대상선	-2,295
외환은행	1,135	삼성증권	-2,081
기업은행	1,028	한진중공업	-1,781
삼성물산	922	STX팬오션	-1,058
KB금융	883	KEC	-906
대우건설	866	코웨이	-890
BS금융저주	856	웅진케미칼	-855
대한전선	816	동양증권	-731

KOSDAQ			
순 증		순 감	
반도체	1,287	제약	-6,522
종합건설	1,106	정보기기	-290
소프트웨어	819	오락,문화	-126
서희건설	1,126	셀트리온	-6,795
루멘스	574	오스템임플란트	-260
네오위즈게임즈	472	에스비엠	-199
유원컴텍	437	캠트로닉스	-167
대아티아이	401	우리이티아이	-143
CJ E&M	339	이엘케이	-127
인프라웨어	278	KH바텍	-122
인터파크	264	디오텍	-118
유비케어	244	오성엘에스티	-117
차바이오앤	204	파라다이스	-10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22(금)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외국인	-2,921.5	-2,600.9	-821.7	-330.5	-90.5	-34.7	-214.3	-150.8
기관계	2,740.9	1,402.3	1,038.6	207.6	153.7	103.7	366.2	193.3
(투신)	-1,865.9	-543.1	87.4	54.9	31.2	-51.2	81.8	-29.2
(연기금)	2,258.1	732.3	351.3	15.4	42.8	166.6	106.0	14.1
(은행)	28.5	-12.7	-39.9	15.3	-4.3	3.8	6.2	3.6
(보험)	486.6	103.9	48.0	-36.1	-9.8	-20.0	28.0	17.1
개인	495.5	1,184.1	-218.9	126.2	-62.8	-85.8	-153.3	-35.3
기타	-314.9	14.4	2.1	-3.3	-0.3	16.8	1.4	-7.2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03/27(수)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50.82	1,948.71	1,977.67	1,983.70	1,993.44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656.6	17160.9	17413.4	18047.9	17533.3
(증감액)	2735.7	1996.5	3611.7	-115.0	-495.7	252.5	634.5	-514.6
(회전율)	52.6	51.5	34.2	18.0	31.2	30.5	33.0	34.1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101.0	-223.1	475.7	694.4	-536.3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355.3	4392.3	4404.7	4418.1	4446.1
미수금	240.2	192.3	187.7	127.5	131.2	143.9	133.5	129.9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03/27(수)
전체 주식형	91,473	-2,660	-992	-3	100	137	-153	-120
(ex. ETF)		-2,889	-752	-2	63	110	-135	-149
국내 주식형	66,416	-1,775	-808	6	106	128	-188	-146
(ex. ETF)		-2,014	-570	7	69	101	-171	-175
해외 주식형	25,058	-885	-184	-9	-6	9	36	26
(ex. ETF)		-875	-182	-9	-6	9	36	26
주식 혼합형	9,614	-389	-170	-102	-87	-1	65	-26
채권 혼합형	20,651	1,585	916	85	75	56	155	131
채권형	49,666	1,952	792	-56	-3	18	-106	301
MMF	79,060	15,597	1,850	311	-1,570	-1,316	-1,409	322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03/22(금)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한 국	-2,504	-2,196	-683	-295	-84	-31	-192	-135
대 만	406	-1,131	-81	-85	50	-27	49	-40
인 도	10,046	1,808	-69	38	149	-	-	-
인도네시아	1,819	69	-256	-31	-98	49	64	53
태국	83	168	-176	3	-25	23	42	23
남아공	462	-485	-176	-86	-33	-42	33	-
필리핀	972	160	-15	-17	-5	7	-	-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2년	03/21(목)	03/22(금)	03/25(월)	03/26(화)	03/27(수)	03/28(목)
회사채 (AA-)	3.29	2.94	2.92	2.92	2.92	2.92	2.80
회사채 (BBB-)	8.80	8.55	8.53	8.54	8.54	8.54	8.41
국고채 (3년)	2.82	2.59	2.58	2.58	2.58	2.58	2.45
국고채 (5년)	2.97	2.67	2.66	2.66	2.66	2.65	2.51
국고채 (10년)	3.16	2.89	2.87	2.88	2.88	2.86	2.73
미 국채 (10년)	1.76	1.95	1.96	1.92	1.90	1.84	-
일 국채 (10년)	0.80	0.60	0.57	0.56	0.54	0.52	-
원/달러	1,070.60	1,115.70	1,119.30	1,110.80	1,105.70	1,111.60	1,111.15
원/엔	1,243.73	1,170.00	1,179.94	1,174.57	1,174.02	1,173.31	1,180.06
엔/달러	86.08	95.41	94.89	94.57	94.18	94.74	94.16
달러/유로	1.32	1.29	1.30	1.29	1.29	1.28	1.27
DDR3 1Gb (1333MHz)	0.67	1.04	1.04	1.04	1.04	1.04	-
DDR3 2Gb (1333MHz)	1.07	1.73	1.75	1.75	1.72	1.72	-
NAND Flash 16Gb (MLC)	1.89	3.00	2.98	2.98	2.95	2.95	-
CRB 지수	295.01	294.05	294.70	294.70	296.72	298.17	-
LME 지수	3,454.5	3,280.7	3,311.4	3,295.8	3,284.0	3,284.3	-
BDI	699	930	933	935	931	922	-
유가 (WTI, 달러/배럴)	91.82	92.70	93.71	93.71	95.92	96.73	-
금 (달러/온스)	1,663.40	1,613.80	1,606.10	1,604.50	1,595.70	1,606.2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최근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KOSPI200	1306월물	이론	마감	평균			증감
3월 22일	255.33	256.30	1.41	0.97	0.80	138,115	107,690	-2,909
3월 25일	259.58	261.55	1.37	1.97	1.29	185,586	107,700	10
3월 26일	260.54	261.80	1.36	1.26	1.06	143,074	107,945	245
3월 27일	261.86	263.90	1.35	2.04	1.61	180,947	105,965	-1,980
3월 28일	261.86	263.90	1.57	2.04	1.80	125,046	106,576	611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보험	기금
			증권	투신	은행				
3월 22일	-92	117	478	-1,392	2,274	-25	-347	-32	
3월 25일	4,894	-4,497	-1,063	-2,585	1,370	126	59	-38	
3월 26일	-599	-12	613	92	-93	0	654	-34	
3월 27일	4,809	-945	-3,794	-2,325	-1,190	142	-74	-351	
3월 28일	1,358	-1,443	20	-180	-144	27	131	186	
누적포지션	-3,563	-3,833	7,118	-1,670	8,175	99	-547	1,052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3월 22일	892	665	-228	728	653	-75	164	11	-153	4,975	9,120
3월 25일	577	669	93	556	656	100	21	14	-7	4,956	9,102
3월 26일	645	644	-1	608	638	30	36	6	-30	4,929	9,046
3월 27일	777	989	212	745	829	85	33	160	127	4,878	9,112
3월 28일	652	820	169	644	751	107	8	7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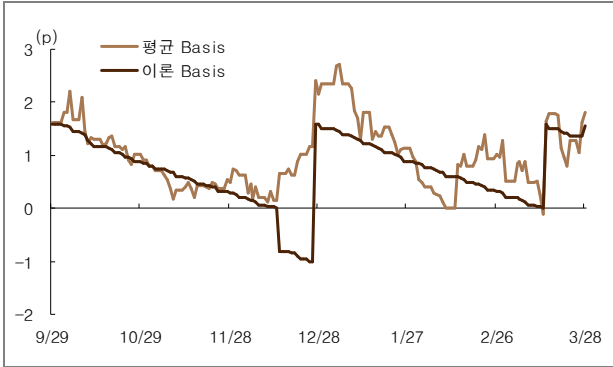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 / 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4.42	3,511	79,261	0.14	275.00	12.30	6	-2	0.00
14.37	1,309	75,562	0.29	272.50	10.40	39	6	10.08
14.65	1,717	121,174	0.60	270.00	7.70	183	25	0.00
15.11	-147	112,120	1.15	267.50	5.75	1,663	108	9.91
15.75	174	121,088	2.01	265.00	4.15	5,909	297	11.96
16.74	-849	43,333	3.25	262.50	2.88	15,020	613	13.16
17.82	151	9,127	4.80	260.00	1.94	105,495	1,694	14.14
19.25	-46	3,014	6.65	257.50	1.27	81,115	2,232	15.00
20.85	-1	408	8.70	255.00	0.83	87,623	1,310	15.91
23.74	-3	80	11.05	252.50	0.55	61,026	1,557	16.92
24.73	-13	38	13.20	250.00	0.35	57,720	1,155	17.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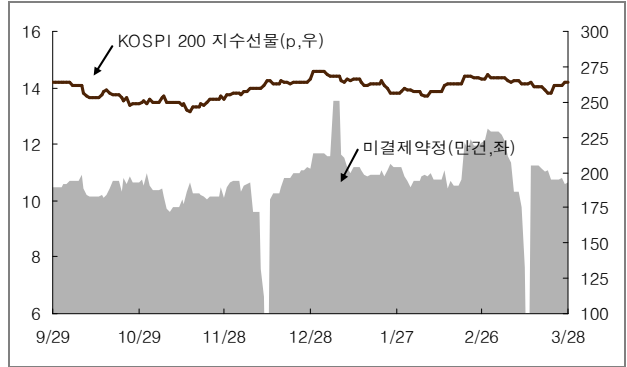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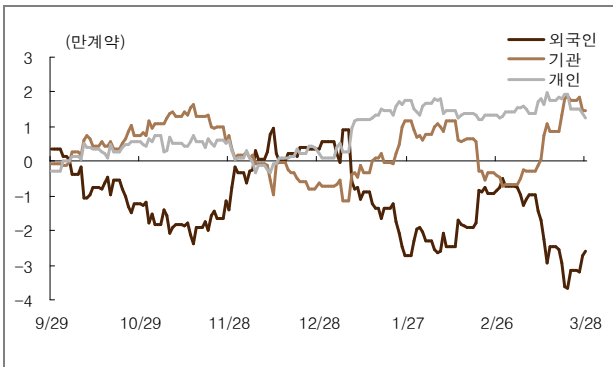
- 평균 Basis: 1.80 (전 거래일 대비 0.19 상승)
- 이론 Basis: 1.57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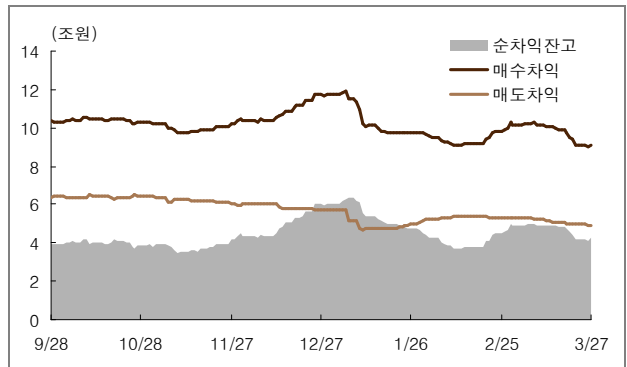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611 계약 증가한 106,576 계약
- 선물가격(263.90): 전 거래일 대비 0.00p 상승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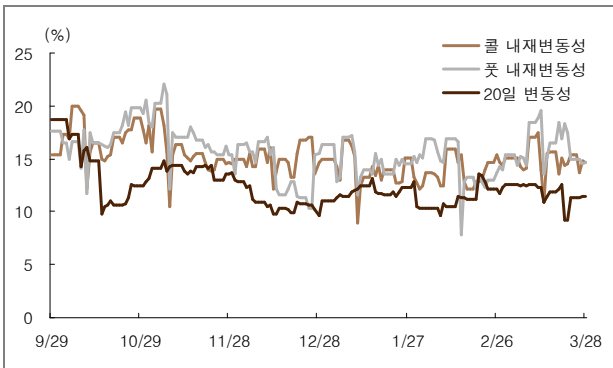
- 외국인: 1,358 계약 순매수
- 기관: 20 계약 순매수 / 개인: 1,443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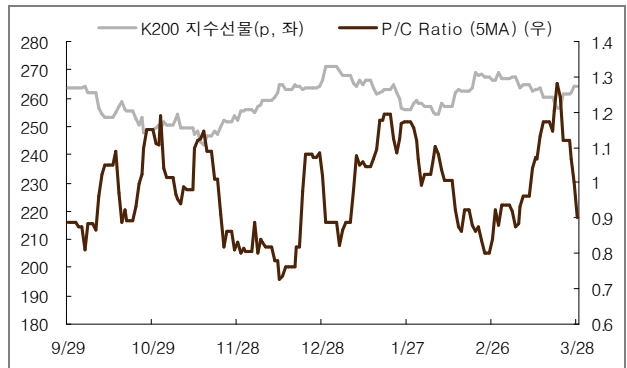
- 차익거래: 621 억원 순매수
- 비차익거래: 1,067 억원 순매수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4.7% / 풋 14.6%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1.43% 기록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0.90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3년 3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18	19	20	21	22
韓> 2월 생산자 물가지수 YoY (-1.6%, n/a, -1.6%) 美> 3월 NAHB 주택시장지수 (44, 48, 46) 유럽> 1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90억, €109억, €103억)	美> 2월 주택착공건수 MoM (91.7만, 91.5만, 91.0만) 2월 건축 허가 MoM (4.6%, 2.3%, -0.6%) 中> 2월 실질 FDI YoY (6.3%, -4.8%, -7.3%) 日> BOJ 총재 임기 만료 2월 백화점 매출 YoY (0.3%, n/a, 0.2%)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7.1%, n/a, -4.7%) FOMC 금리 결정 (0.25%, 0.25%, 0.25%) 유럽> 3월 유로권 소비자대지수 (-23.5, -23.2, -23.6)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3.6만, 34.0만, 33.2만) 1월 주택가격지수 MoM (0.6%, 0.7%, 0.5%) 3월 필라델피아 연준 지수 (2.0, -3.0, -12.5) 2월 기준주택매매 MoM (0.8%, 1.6%, 0.8%) 2월 경기선행지수 (0.5%, 0.4%, 0.5%) 유럽> 3월 유로권 PMI 제조업 (46.6, 48.2, 47.9) 3월 유로권 PMI 비제조업 (46.5, 48.2, 47.9) 中> 3월 HSBC 플래시 PMI 제조업 (51.7, 50.8, 50.4)	
25	26	27	28	29
	韓> 4분기 GDP YoY (1.5%, n/a, 1.5%) 4분기 GDP QoQ (0.3%, n/a, 0.4%) 美> 2월 내구재 주문 MoM (5.7%, 3.9%, 3.8%) 1월 S&P/CS 주택가격지수 (146.14, 146.17, 145.95) 3월 소비자대지수 (59.7, 67.5, 68.0) 2월 신규주택매매 MoM (-4.6%, -3.9%, 15.6%)	韓> 3월 소비자대지수 (104, n/a, 102) 美> 주간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7.7%, n/a, -7.1%) 2월 미경주주택매매 MoM (-0.4%, 0.7%, 3.8%)	韓> 2월 경상수지 (\$271.3억, n/a, \$233.2억)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4.0만, 33.6만) 中> 2월 선행지수 (미확정) (n/a, n/a, 100.50)	韓> 4월 BSI 제조업 (n/a, n/a, 76) 4월 BSI 비제조업 (n/a, n/a, 69) 2월 산업생산 MoM (n/a, 0.3%, -1.5%) 2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 (n/a, n/a, -0.2) 美> 2월 개인소득 MoM (n/a, 0.8%, -3.6%) 2월 개인소비지수 MoM (n/a, 0.6%, 0.2%) 日> 2월 실업률 (n/a, 4.2%, 4.2%) 2월 소비자 물가지수 YoY (n/a, -0.7%, -0.3%) 2월 산업생산 MoM (잠정치) (n/a, 2.5%, 0.3%) 2월 자동차 생산 YoY (n/a, n/a, -9.9%)
4/1	2	3	4	5
韓> 3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3월 무역수지 3월 HSBC 제조업 PMI 美> 2월 건설지출 MoM 中> 3월 HSBC PMI 제조업 日> 1분기 단칸 대형 제조업 지수	韓> 3월 외환보유액(잠정치) 美> 3월 ISM 뉴욕 3월 제조업수주 4월 IBD/TIPP 경기낙관지수 유럽> 2월 유로권 실업률 日> 3월 자동차판매 YoY	美> 3월 국내 자동차판매 MBA 주택용자 신청지수 ADB 취업자변동 3월 ISM 비제조업지수 中> 3월 HSBC PMI 비제조업 실적발표> 美 몬산토	美> 4월 RBC 소비자전망지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실업보험연속수급신청자수 유럽> 2월 유로권 PPI YoY ECB 금리 공시 日> 일본은행 정책금리	美> 3월 비농업부분고용자수 변동 3월 민간부문 고용자수 변동 3월 실업률 2월 소비자신용지수 유럽> 2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日> 2월 동행지수 CI 2월 선행지수 CI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

